

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집

2016.04.09. SAT

단 하나의 원리로 공무원 국어를 정복하다!

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총평 - ②책형

2015년 국가직 문제보다는 약간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어휘적인 부분에서 개인차가 조금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법에서는 평이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지만 외래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여서 헛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은 예측했던 대로 독해 위주였습니다. 운문·산문, 고전·현대 가리지 않고 독해 위주로 나와서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비문학은 내용 일치를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논리적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이 뜻밖이었습니다. 어휘에서 고유어와 한자, 한자성어가 나왔는데 한자성어는 평이했고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개인차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출제 분포 - ②책형

문법	조사	1문항
	표준어	1문항
	띄어쓰기	1문항
	외래어 표기	1문항
	문장의 종류	1문항
	단어의 의미 관계	1문항
	어법	1문항
문학	고전산문	1문항
	현대시	2문항
	현대소설	2문항
비문학	내용 일치	3문항
	중심 내용	1문항
	제목	1문항
어휘	한자성어	1문항
	한자	1문항
	고유어	1문항

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집

2016.04.09. SAT

단 하나의 원리로 공무원 국어를 정복하다!

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

1.

정답 ②

‘쉬림프’ → ‘슈림프’

2.

정답 ①

여기서 ‘는’은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이고 있다.

예)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3.

정답 ④

교씨의 사악함이 밝혀지고 사씨의 누명이 벗겨진 것은 ‘사필귀정’과 관계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4.

정답 ①

이 글의 핵심은 마지막 문단에 있다. 앞에서 나타나는 문단은 실험을 한 예이고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있는 마지막 문단에 있는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은 공평함과 관계있는 것이다.

5.

정답 ②

이 글에서는 접속어 ‘그러나’ 이후에 자신의 중심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로마를 먼저 보라는 것이 글쓴이의 핵심적인 의도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로마는 문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답은 ②이다.

6.

정답 ③

사명(使命): 맡겨진 임무.

제목을 찾는 문제는 전체 핵심과 관련 있는 어휘를 고르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예를 들면’ 이후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는 지문이다. 그리고 핵심 지문은 두 번째 문장인 ‘그러나’ 이후이다. 조국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을 때, 시인은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도 있고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시인의 사명’이다.

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집

2016.04.09. SAT

단 하나의 원리로 공무원 국어를 정복하다!

7.

정답 ③

㉔은 무서움과 무료함을 잊기 위한 행위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어린 아이의 한 방식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 않는다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 문맥이다. 그러므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났다고보다는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정답 ③

‘이슬’은 맺혔다 사라지는 순간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③의 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①의 ‘눈물’은 어머니의 고통과 인내를 담은 사랑의 의미로 쓰였다.

②의 ‘나뭇잎’은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미소를 빗댄 것이다.

④의 ‘구름’은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존재로 볼 수 있다.

9.

정답 ②

부상과 함지는 반의어이고 나머지는 유의어이다.

부상(扶桑): 해가 뜨는 동쪽 바다.

함지(咸池):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

① 광정(匡正):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

확정(廓正): 잘못을 바로잡음.

③ 중상(中傷):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비방(誹謗):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④ 갈등(葛藤): 철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알력(軋轢):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10.

정답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을 하며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판옥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할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판옥선에 대해 조수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냐고 다시 질문하고 있다.

11.

정답 ④

‘하고’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① ‘보다’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였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②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집

2016.04.09. SAT

단 하나의 원리로 공무원 국어를 정복하다!

- ③ ‘은커녕’은 보조사 ‘은’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로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12.

정답 ②

안갯음: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비슷한 말] 반포(反哺).

양갯음: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 ① 해미: 바다 위에 낀 아주 짙은 안개.
③ 볼썽: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④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13.

정답 ①

- ① 콧방울: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
② 눈초리/눈꼬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③ 콧밥/콧불: 콧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
④ 장딴지: 종아리의 살이 불룩한 부분.

14.

정답 ④

이 작품은 세태에 맞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처세훈적 교훈을 말하는 작품이다.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많고 잘생긴 사람이 적다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용모에 대한 논의는 당시의 도덕성이나 지혜, 안목 등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15.

정답 ③

- ①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② ‘떡 먹은 입 쏘여 치듯’은 ‘떡을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쏘여 내며 시치미를 뚝 떤다는 말’이다.
③ ‘경원하다’로 바꾸는 것이 맞다. ‘경원을 사다’는 주체가 당하는 입장에서 써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④ 앞뒤 내용이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

16.

정답 ③

- ① ‘교정이 넓다’는 서술절로 안긴문장이다. 서술어는 주성분이다.
② 명사절 ‘비가 오기’는 목적격 조사와 붙어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③ ‘아이들이 놀다 간’은 관형절이다. 관형어는 부속성분이다.
④ ‘대화가 어디로 튈지’는 부사절이지만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될 수 있으므로 목적어로 쓰였다.

2016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집

2016.04.09. SAT

단 하나의 원리로 공무원 국어를 정복하다!

17.

정답 ②

간섭(干涉 방패 간, 이를 섭):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간(間 사이 간), 섭(涉 이를 섭)

- ① 사주(使嗟 부릴 사, 부추길 주):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③ 결함(缺陷 이지러질 결, 빠질 함):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
 ④ 적결(剔抉 빼 바를 적, 도려낼 결):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림.

18.

정답 ④

몰두(沒頭 가라앉을 몰, 머리 두):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몰두(沒頭 가라앉을 몰, 머리 두)’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여기서 한자 어휘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므로 ④가 정답이다.

19.

정답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 ‘나’가 있으므로 1인칭 시점이다. 이 글의 원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지문으로는 명확하게 말하기 모호하다. 그러나 보기로 보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1인칭 시점을 이야기한 ②밖에 없다. ④는 3인칭 시점이 교차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①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②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을 말한다.

20.

정답 ①

- ① 체중이 얼마냐는 질문에 체중을 말하고 필요 이상의 키까지 언급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보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너는 몇 살이냐고 물었으나 형의 나이까지 말했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